

<나의 삶 나의 하나님> 노래하는 전도사 박재란

"재란아, 너는 목소리가 꾀꼬리 같구나. 가수가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의 대중가요 하고는 좀 색다른 경쾌한 템포의 노래를 부르면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겠다." 나는 그저 아무 것도 모르면서 형부 친구분의 손에 이끌려 가수가 되었습니다. 데뷔곡은 <럭키 모닝>. 경쾌한 리듬에 발랄한 울동을 곁들여 부른 노래는 저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습니다. 이어서 <산너머 남촌에는>, <밀짚모자 아가씨> 등 국내 최초의 울동 가수가 되어 주가를 날로 높이는 인기 가수가 되었습니다.

저의 삶은 찬란했습니다. 인기! 돈! 어디를 가든 공주처럼 떠받들어 주는 달콤한 맛! 이런 것이 인생이라면 인생이란 얼마나 황홀한 것인가! 그러나 세상의 인기는 물거품 같은 것.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 떠받들던 가요계에 새로운 가수가 계속 등장하면서 박재란의 인기는 계속해서 하향 곡선 일변도였습니다. 신혼의 단꿈마저, 딸 하나를 얻은 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의 집념은 어떻게 하면 그 옛날의 인기를 다시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한가지뿐이었습니다. '미국으로 가자! 그 넓은 땅에서 다시 재능을 펴고 다시 인기와 부를 누리자!' 그러나 미국 땅은 상상을 초월하는 바닥 인생의 되풀이였습니다. 언어 장벽. 국내에서 얻었던 기회 같은 것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바늘 끝만한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실패자의 초라한 모습으로 고국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화려한 재기의 무대를 거쳐, 보란 듯이 돌아가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집념은 병이 되어 나를 쓰러뜨렸습니다. 심장과 신장에 이상이 오더니, 급기야는 악성 위궤양이 되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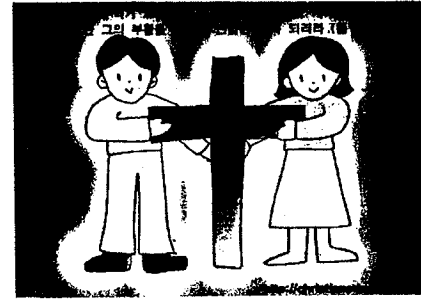
발병 초기에 딱하게 여기고 도와주던 이웃들도 하나, 둘 떨어져 나갔습니다. 6개월, 1년, 다시 반년... 그렇게 2년이 되면서 얼굴은 새까맣게 기미로 뒤덮히고, 스타킹을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는 가늘어져서 일어서서 걷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나날이 질어가는 것은 죽음에 대한 생각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어야 할까를 생각하던 어느날, 무심중에 TV를 켜니, LA교포를 대상으로 하는 TV선교 프로그램 방송 중에 어느 선교사 한 분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는 말씀이 들려 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갑자기 하늘과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없이 들어 왔고 무심히 지나쳤던 그 한 말씀! 갑자기 '성경! 성경!' 성경을 찾아 온 집안을 뒤집어 놓아 가며 성경을 찾고 보니 오래된 포켓용 성경 한 권이 찾아졌고, 그 길로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실감할 수 없었던 대목 대목들이 생명수처럼 가슴으로 가슴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눈물, 콧물, 엷드려 통곡하다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다가, 어릴 적 소꿉동무에게 행한 거짓말까지 날날이 떠올라 회개, 회개로 밤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았습니다. 엷드려 울던 자리가 눈물로 질펀하게 젖어 있었으나 시장기까지 느껴져, 냉수에 밥을 말아 김치를 반찬으로 먹었습니다. 먹다가, '아니 내가... 김치하고 냉수말이 밥을 먹고 있지 않아?' 깜짝 놀랐으나 몇 시간이 지나도록 멀쩡했습니다. 오히려 활기와 힘이 솟구쳤습니다. 너무도 신기하여 그때부터는 감사의 눈물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밤낮없이 노래하고 삽니다. 이제 저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노래하는 전도사! 찬양! 찬양! 찬양의 생활이 이어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어서, 허황된 꿈을 좇기 쉬운 연예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딸 박성신까지 청소년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1년 교회생활: "OT하는 갈보리교인"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익명성 - 명예
제 3권 25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1년 7월 1일
☎520-9464/021-292-1639, ☒10 Burleigh St(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십자가의 사랑



스위스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날 한 관광버스가 손님을 싣고 관광지에서 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모두가 지쳐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고개를 막 넘어가려던 순간, 운전사는 브레이크에 이상이 생긴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로 내리막길에 접어든 버스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고 버스에 점점 가속이 붙자 눈을 뜬 관광객들은 뭘지 이상이 생긴 것을 눈치채고는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고 이성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운전사는 침착하고 조심스럽게 모든 커브길을 통과하였고 모든 관광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습니다. 이젠 마을 길을 지나 반대편 언덕으로 올라가 차가 자연히 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 저 멀리 아이들이 길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운전사는 경적을 울려 피하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피했지만 아직 한 아이가 그 자리에서 우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운전사는 관광객을 살려야 할지 저 어린아이를 살려야 할지 갈등하다가 결국 그 어린아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예상대로 건너편 언덕에서 멈춰 섰습니다. 운전사는 차가 서자마자 그 아이에게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아무 말없이 아이의 품에 고개를 묻고는 아이를 안은 채 흐느끼 옆의 오솔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살인자! 살인자!" 하며 야유를 하였습니다.

그순간 어느 젊은이가 외쳤습니다.

"모두들 그만뒤요. 소리지르지 말아요. 저 아이는 바로 운전사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바로 아들을 스스로 버려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때론 생각해 봅니다. 자녀를 위해 이민이라는 터전을 마련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1.3절: 다같이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11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18(시편 67)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500장	다 같이
기 도 Prayer		김종건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누가 16:19-31(신 123)	인 도 자
주 일 학 교 Sunday School		아 동 부
부부성가대 Couple Choir		부부성가대
설 교 Sermon	"천국과 지옥"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182장 (마지막절은일어서서)	다 같이
*헌 금 기도 Offeratory Prayer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 같이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일자	주일기도	수요기도	헌 금 위 원	Tea Time	주 일 안 내
7월1	김종건	정의령	최재학, 노은숙	김교섭, 김성국	김종건, 정희자
8	노은숙	조순정	김교섭, 정희자	김시욱, 김영길	박일영, 임혜자
15	박영태	지찬영	김시욱	김종건, 박영태	최윤호, 송정섭
22	박일영	최윤호	김영길, 신경화	박정자, 박일영	최재학, 정희자
29	박정자	최재학	김종건, 지찬영	변지웅, 이경석	박영태, 정리령

'2001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 1년 성경완독 사항> 매일 QT(Quiet Time) 생활화	<등록규정>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	--

주일예배 12:00 | 수요일예배 7:30 pm | 금요일새벽기도: 6:00 | 학생, 청년부: 토요일 4:00

교 회 소 식

1. 성경완독 1년
 *그 동안 완독하신 성경완독표는 봉헌함에 넣어주십시오.
 에스겔-호세아:1명. 호세아-말라기:1명
2. 2001년 하반기부터(7월 6일) 구역예배를 드립니다. (구역편성표 참조)
 *모임요일: 매달 첫주 금요일 7:30pm *예배인도자 모임: 매달 첫주 수요일예배후
3. 금주는 구역예배 주간입니다(매달 첫주 금요일).
 디모데구역: 박영태 집사 자택(37 Cobham Cres. Kelston. 813-0818)
 솔로몬 구역: 이선우 집사 자택(7 Lambrown Dr. Glenfield. 441-7557)
 다윗 구역: 박일영 집사 자택(27 Simmental Cres. Howick. 535-5067)
4. 등록교우 "기초성경공부(6기) 두번째: 등록교인 의무과정입니다
 *일시: 7월 3일(화) 저녁 7:30
 *장소: 교회 *대상: 금년도 등록가정
5. 청년, 학생부수련회: 기도하여 주십시오
 *일자: 7월 3-4일
 *장소: Peter Snell Youth Village. City Wellesley St. Auckland
 (09)424-5521. 025-296-0333
6. 7월부터 Tea Time 정리를 2가정씩 담당합니다.

◆7월의 교회력

	교 회 력	모임 및 행사
1일		구역예배(6일)
8일		식사교제. 청년, 학생부 수련회
15일	교회창립기념주일	임시동역자회의
22일		
29일	공동의회	교사기도회(3일)

◆구역예배를 위한 구역편성표: <교구장> 김교섭

- *디모데 구역: <구역장> 정의령. (부)김정미 <예배인도자> 김영길
 <구역가정>김시욱, 김영길, 박영태, 변지웅, 이강호(최유나)
 이지형, 인치혁, 최병하(민철)
- *솔로몬 구역: <구역장> 송정섭(부)조순정 <예배인도자> 이경석
 <구역가정>이경석, 이선우, 최윤호, 최재학, 박영태
 손승일(윤한나), 신지수.
- *다윗구역: <구역장> 임혜자 (부)김영태 <예배인도자> 김종건
 <구역가정>김교섭, 김종건, 박일영, 사카시다 안원희, 엄주화.